청정성 바탕 종지종풍 확고히

종단도 무한경쟁시대에 놓였다. 개신교, 가톨릭 등 타종교와 비교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불교 종단간에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일부 불교종단들의 현실은 시대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준비는커녕 변화의 흐름을 좇기도 버거워하고 있다.

'불교 옷'만 입었을 뿐 실상은 불교와 다른 유사종단의 경우, 불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아 이 또한 기존의 전통 종단들이 해결해 가야할 큰 문제다. 유사종단을 가려내거나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서 초래되는 현상이다.

발전하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불교 종단으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신도들의 교육 ·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가수행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과 권위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높아진 수준의 신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위의와 역할이 신도들을 끌어모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호법·규찰 기능 강화를

많은 이들이 종단이 더욱 청정성과 건전성을 지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청정한 교단과 건전한 종단운영이야말로 사회를 선도하고 맑히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 이를 위해 호법 · 규찰 기능을 갖고 있는 중앙종무기관의 역할 확대, 소속 스님들에 대한 공부 및 수행풍토 조성, 체계적인 신도교육 등이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스스로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는 조계종, 천태종 등 일부 종단만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마저도 종단 소속종도들에 국한된 활동과 일부 해종행위 등에 한해 제한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종단을 초월해 출가자 전체로 활동폭을 넓힘으로써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각 종단이 그들만의 특색 있는 '색깔'을 가지고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종단별로 나름대로의 종지종풍을 세워나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종지종풍 차이가 아니라, 개인적 이해관계로 분종하거나 종단을 창종하는 행태는 불자들로부터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종지종풍과는 거리가 먼 소속사찰들의 '백화점식 불교'로는 더 이상 불자들의 발길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후죽순 종단 이대로 좋은가?

① 정체성 모호한 종단 많다
② 승려양성 · 수계체계 강화 시급하다
③ **내실 있는 종단으로 거듭나자**

사설사암 종단에 등록해야

이와 함께 체계적인 종단 형태를 갖추고 내실 있는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모범적인 사례로 천태종과 진각종이 꼽힌다.

천태종은 250여 사찰과 300여명의 스님으로, 진각종은 130여 심인당과 250여 스승으로 구성돼 있는 등 두 종단은 사찰수나 종도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불교내 역할에 있어서 제2, 제3종단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속사찰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수행처 마련'을 명목으로 삼보정재로 사설사암을 마련하거나 사찰을 종단에 기증하지 않는 행태도 바뀌어야할 시급한 문제다.

현재 불교재산 보호를 위해 유지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종단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법륜종, 법화종, 일붕선교종, 열반종 등 10여개. 이 중에서도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만이 모든 소속사찰을 재단법인 형태로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사설사암은 소속사찰에 대한 중앙종무기관의 행정력과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나아가 종단난립과 사찰매매, 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불신 등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설사암을 종단에 귀속시키기 위한 각 종단의 노력과 사찰신도들의 '우리 절 찾기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범종단차원 심사기구 시급

또한 이단적인 종단이나 반불교적인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불교를 표방하는 단체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할 수 있는 범종단적 기구 설립, 신고센터 · 피해사례 접수처 설치를 포함한 종단협 역할 확대 등이 이의 대안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나가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통해 종단설립 요건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사이비종교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거나 종교시설물의 개인소유권을 부정하는 종교법인법 제정 등 종교관련법 제정 ·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사찰과 같은 종교시설물과 부속건물, 토지 등의 소유권 등기가 주지 스님 명의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토록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는 일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설사암의 종단 이적, 종단내 분담급 체납, 사찰의 임의매각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서강대 교수)는 "한국불교가 희망을 주는 불교,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 종단이 수적으로 몸집을 불리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운영과 종단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각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라며 "종단 스님 및 재가불자들이 뜻을 모아 한국불교의 체질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연쇄살인 희생자 위령천도재

태고종 · 봉원사, 30일 암매장 현장서

'다음 생에는 연꽃으로 화하소서.'

유영철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영가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 영혼이 왕생극락하기를 발원하는 위령천도재가 7월 30일, 11구의 시신이 암매장됐던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봉행됐다.

봉원사 영산재보존회가 주관하고 태고종 총무원과 봉원사 관음회가 후원한 이날 천도재는 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현동훈 서대문구청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재 의식에 따라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봉원사 주지 인공 스님(태고종 중앙종회 의장)은 봉행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끔직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전 국민과 우리 사회의 바람을 담아 구천을 맴돌고 있을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제7회 전산교육 시행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제7회 전산교육을 8월 10~13일 4일간 동국대 전산원에서 실시한다.

초급(40명) · 중급(40명)과정으로 나눠 실시하는 이번 전산교육은 정보화시대에 맞춰 종무행정 능률을 높이고 스님들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초급과정 △컴퓨터의 개념 및 기본사용법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 2002) △문서활용 · 인터넷 기초(개념, 이메일) △인터넷 활용, 중급과정 △컴퓨터 운영체계 활용 △한글 활용(워드프로세서) 활용 · 인터넷 활용 △오피스(엑셀, 파워포인트) 기초 △오피스 활용 등이다. (02)732-4923

청소년 해군 병영체험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중 · 고등학생회 'NAVY 캠프'를 열고 해군병영 생활을 체험한다. 평택 법장사에서 사찰체험 행사도 갖는다. 중 · 고교생의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협동심과 질서의식, 안보의식, 인내심을 키우기 위한 취지다.

교무부 관계자는 "중 · 고교생들의 정서 함양과 종단관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정 자문위원회 개최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8월 12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 회의실에서 종정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효강 종령 취임 이후 종무행정 방향과 종단쇄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

이날 회의에는 효강 종령을 비롯해 총지화 전 통리원장, 원봉 정사, 법장화 전수 등 기로스승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반기 종도교육·수련회

삼론종(총무원장 혜광)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창 부석사에서 '2004년 하반기 종도교육 및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부종정 혜공 스님의 '종도화합과 도제양성-승려로서의 기본자세와 덕목' 강의를 비롯해 대중포교지침, 불교신앙의 본질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 삼론종의 의식과 수행을 종정 석봉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진각종 예비 교화자 교육 입재

진각종 제5기 교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일간의 교육이 시작됐다.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은 7월 26일 서울 총인원에서 '초발심'을 주제로 제5기 교화자교육 발단불사(입재식)를 봉행했다.

교육원장 혜정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교화자교육의 목적은 스승이 되기 위한 인성을 배우고 평생을 두고 수행할 수 있는 바른 자세를 교육시킴에 있다"고 전제하며 "교육기간 동안 교육대상자들은 처음으로 용맹정진 한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교화자교육 대상자 7명은 100일동안 종앙종무기관의 소임을 맡고 있는 스승들의 실무강의를 비롯해 △체험법문 △심성수련 특강 △화법 및 스피치 특강 △설법안 연구 △다회 및 상담심리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천태종 평창 대흥사 백화당 낙성

천태종 평창 대흥사(주지 국성)는 7월 23일 백화당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감사원장 정산 스님 등 1만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대흥사가 평창지역의 불교를 더욱 진흥시키는 진원지이자 불자들의 귀의처로 자리잡길 당부한다"고 법문했다.

착공 3년여만에 완공된 백화당은 연건평 5백여평 규모의 4층 건물로, 법당과 요사채, 신도사무실 등을 갖춘 종합불교회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진각대 5일간 정진실수 실시

진각종 진각대학(학장 혜정)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주 산내연수원에서 정진실수를 체험했다.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실수에서는 새벽 4시부터 묵언수행, 계명정진, 가행(걷기) 등을 매일 9시간씩 정진했다. 이 외에도 회당 대종사 법어 및 실행론 묵송을 비롯해 발우공양, 육자진언 염송, 허일범 진각대 교수 · 덕일 위덕대 정교실장의 '정진' 특강 등도 진행됐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벳 불교의 원전인 입보리행론(깨달음에 드는길)을
4일동안이나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4년 10월 27일 ~ 10월 30일(4일간)
■ 장소 : 인도의 수도 델리
■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진옥스님 061-662-1607)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샨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복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달라이라마 설법과 불교성지순례)

A팀 기간 : 10월24일~11월1일 9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자이푸르-델리(설법)-아그라-인천)

B팀 기간 : 10월26일~11월4일 10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설법)-아그라-산치대탑-아잔타,엘로라석굴-뭄바이-인천)

C팀 기간 :10월25일~11월3일 10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델리(설법)-산치대탑-아잔타,엘로라석굴-뭄바이-인천)

D팀 기간 : 10월26일~11월8일 14일간 (동참금 245만원)
(인천-델리(설법)-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
라즈기르-보드가야-아그라-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티벳 불교의 원전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살아있는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통역은 달라이라마의 제자이며 17년간 공부한 청전스님과 티벳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맡아 진행합니다. 입보리행론은 청전스님이 번역한 교재를 제공합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